

임한중 회장 일행, 베트남·라오스 등 방문 동남아 기생충관리실태 조사 위해 5월 7일 출국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 회장, 하성미 사무총장, 남서중 건강증진국장과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채종일 교수 등이 오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를 방문한다.

임회장 등의 이번 방문은 동남아 지역 기생충관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의 효율적인 기생충 관리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임회장 일행은 이번 기간동안 베트남 수산물관리센터 Vo Sy Hoi 국장을 만나 호치민시 메콩강 유역의 칸토, 하

노이의 홍강 등을 돌아본 후 라오스의 비엔티안을 방문해 보건성 위생국장 Dr.K. Pholsena를 접견하고 기생충병 연구소와 WHO 주라오스 대표부 고문관 Dr.G.Deodato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메콩강 유역의 기생충유행자인 Pakse를 둘러본 후 방콕을 거쳐 귀국한다.

이번 동남아 지역 방문은,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우리 나라의 성공적 기생충관리 경험과 기술을 중국에 전수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한편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동남아지역의 기생충관리 및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시했다. 전주시청에서 있었던 이날 무료검진에서 방청객 50여 명이 건강상담·혈압·요당·요단백·요잠혈·혈당·빈혈·비만도검사 등을 받았다. 이날 방청객에게는 또 추첨을 통해 종합건강검진권·체성분 분석권·헬스이온이용권 등이 제공되었다.

부산지부, "열전! MBC 노래방 일요스페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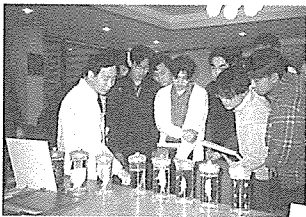


부산지부 김성대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10여 명이 지난 3월 14일, "열전! MBC 노래방 일요스페셜"에 참여했다. 김국장 등은 이날 개인 노래자랑과 함께 알뜰 건강검진법에 대한 소개를 했다.

대전·충남지부, 대전시민 성인병 검진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3월, 대전시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위암 등 각종 성인병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했다. 3월 1달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순회검진 형식으로 실시된 이번 검진에서 성인병 검진과 오후에는 혈액형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직장 및 사업 상 오전 검진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오후 8시부터 2시간에 걸쳐 검사를 실시했다.

경산대 보건학부 남철현 교수와 학생, 대구지부 방문



경산대학교 보건학부 남철현 교수, 위광복 교수를 비롯한 학생 30여 명이 지난 4월 14일, 건협 대구지부를 방문했다. 남교수 등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협회의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사업에 대한 현황을 듣고 지부 종합검진실을 견학했다.

광주·전남지부, 저소득 전남지역 주민 무료 검진

광주·전남지부가 광주광역시 및 전

남도내 40세 이상 저소득 취약 계층 도민 중 나누시·담양군 등 5개 시군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에 시작해 오는 9월 9일까지 총 7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위암·간기능 검사 등 10여 개 질환에 걸쳐 실시되는 이 검진은,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과 성인병을 조기발견·치료토록 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검진사업은 도비·시군비·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수혜자에게 무료검진 혜택을 주고 있다.

전북지부, KBS교양강좌 협찬 무료검진

전북지부는 지난 3월 24일, KBS교양강좌 '보여주는 시대의 불행과 행복(고려대 민용태 교수)' 프로그램 협찬의 일환으로 방청객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

제27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가져 김모임 장관, “질병 예방 위한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에 주력”



제 27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월 7일 보건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전 제 2청사에서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하성미 사무총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는 등, 국민건강증진 유공자 239명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 등이 수여되었다.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활기찬 노

년, 건강한 어르신’을 주제로, 김찬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관련단체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를 21세기를 준비하는 보건복지 원년으로 정하고,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국민 기초생활 보장, 그리고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통하여 건강한 보건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사전 예방적·적극적 개념의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 좋은 건강습관을 갖게 하기 위한 보건교육 강화,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질병 예방 및 관리 실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해 온 관계자들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날 기념식을 마친 후, 황수관 박사의 ‘MF 시대 직장인의 신바람 건강관리’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김재권 부장(충북지부), 조정호 과장(부산지부), 신종균 과장(인천지부), 손은주 대리(경남지부), 남기중 주임(대구지부), 정문휴 주임(제주지부)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대전충남지부 신옥희 대리를 비롯한 지부 직원들이 시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부산·경기지부, 백화점 이용객 무료상담 및 검사



부산지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13일 까지 부산백화점과 세원백화점 1층에서 무료 건강상담 및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또 경기지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12 일까지 수원시내 갤러리아 백화점과 뉴코아백화점 남문점에서 백화점 이용객을 상대로 혈압·당뇨·콜레스테롤·비만도·혈액형·소변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했다.

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무료검진에서 경기지부는 현지 검사 및 상담 외에도 지부 검진센터에서 정밀 체성분검사와 스트레스측정을 받을 수 있는 무료 검진권도 배부했다.

전북지부, 도내 초·중 학생병리검진기관 지정 받아

전북지부가 지난 해에 이어 도내 학생병리검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숨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예방하여 건강한 학교생활 유지 및 학생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 검진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생 5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군산시 교육청 관내 67개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오는 10월

까지 계속될 이 검진사업의 종목은 혈액소·적혈구·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간기능검사 등 식생활 관련 및 건강상태 측정을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성 어린이집 원생, 광주·전남지부 견학



광주시 광성 어린이집 원생 50여 명이 지난 3월 19일 광주·전남지부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는 한편 검진시설을 견학했다.

보건단체 건강캠페인, 서울역 광장서 실시



▲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차량 앞에서 시민들이 검진을 받고있다.



◀ 순회이동보건교육차량을 둘러보고 있는 오대규 보건증진국장(중앙)과 하성미 사무총장(오른쪽), 남서중 건협건강증진국장.



▲ 참석인사 기념촬영

제 27회 보건의 날 기념 '보건단체 건강증진 캠페인'이 지난 4월 8일 서울역 광장에서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7개 보건단체가 참석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무료 건강검사와 상담, 헌혈 유도, 질병 관련 자료 배부 및 전시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날, 순회이동보건교육버스와 특수 암검진 차량을 동원하여 혈압·당뇨·비만도·혈액형

등에 대한 무료검사와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는 한편,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 예방 관련 비디오투를 상영해 서울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 회장, 하성미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오대규 보건증진국장, 박용주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해 각 단체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의원, 전북지부 방문

지난 4월 20일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건협 전북지부를 방문해 박절동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진시설을 돌아봤다. 업무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전북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암검진사업, 보건교육, 소외계층 및 학생검진 등 다양한 검진사업에 노력하고 있는 전북지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정길진 의원(교육복지위원장), 김희수 의원(간사), 허영근 의원(도의회 부의장), 김완자 의원 등은 함께 참석한 환경보건국 관계자들에게 건협 전북지부가 저소득층, 소외계층, 산간오지·도시지방 주민 등 절대적 의료수혜 빈곤층에 대한 공익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장비 확보(전문종합검진기기 탑재 차량 등)에 전폭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지부, 흥천군 모곡지역 주민 건강검진



강원지부는 지난 3월 20일, 흥천군 모곡 진료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경남지부, 7월까지 저소득층 무료 검진

경남지부가 저소득층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암검진을 비롯한 무료건강검진을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

경상남도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검진에서 경남지부는, 초음파진단기를 장착한 이동검진 차량

을 이용해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부, 자궁경부확대 촬영 검사 시작

서울지부가 지난 4월부터 자궁경부확대 촬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검사법은 1981년 미국 Wisconsin 의과대학의 Adolf Staff 박사에 의해 고안되었는데, 세포검사법과 병용할 경우 자궁경부암을 98% 진단하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방법이다.

이 검사법은 서비스코프라는 의료용 특수 촬영기로 자궁경부를 촬영하여 엄밀한 처리과정을 거쳐 최고 50배까지 확대하여 판독하게 되는데, 검사의 정확도와 객관성이 뛰어나 뿐만 아니라 검사 시 상처나 흔적이 생기지 않고 전혀 통증이 없으며 검사시간도 짧고 간편하며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제공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